

음악치료사의 임상 현장에 관한 경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과제

문소영*, 박지원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Experiences of Music Therapists in the Clinical Practice: Challenges and Tasks for the Post-COVID-19 Era

Soyoung Moon*, Jiwon Park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Myo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악치료사들이 겪은 임상 현장의 경험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의도적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6명의 음악치료사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개별 면담 및 서면으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Colaizzi의 현상학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개의 주제, 7개의 주제 모음, 3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범주로 임상 현장의 위기 상황, 음악치료사의 임상 실행에서의 난관, 새로운 임상 패러다임으로의 도전과 과제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음악치료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치료사의 자기돌봄의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또한 음악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임상 현장에서 음악치료사들이 경험한 내용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라는 대 전환에 따른 음악치료 임상 현장의 도전과 대면/비대면 음악치료의 실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practicing music therapists in the post-COVID-19 era. A total of 6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 were selected by applying purposive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processed with individual interviews and e-mails from September 2020 to August 2021. Using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of Colaizzi, 19 themes, 7 theme clusters and 3 categories were analyzed. The necessity of a systematic safeguard for music therapy job security was discussed. Also, self-care for music therapists to cope with the psychological crisis was indicated, along with accepting a new paradigm and managing strategies. This study addresses the challenges of music therapy practices and tasks by implementing face-to-face/tele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service following a transition of the COVID-19 pandemic.

Keywords : Music Therapist, Clinical Practice, COVID-19, Phenomenology, Colaizzi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5830)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Moon(Myongji Univ.)

email: symoon@mju.ac.kr

Received October 8,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Revised November 1,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최초 보고된 이후, 연쇄적인 지역 확산과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과 사회적으로 다각도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1]. 이로 인해 내담자의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음악치료 임상 현장도 치료 형태의 특성에 따른 감염 우려로 대면 세션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2].

음악치료가 시행되는 기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내담자의 연령대 또한 유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3].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들에게 인지, 정서 또는 신체적 요구 충족의 도구로서 음악 경험이 적용되는데 물리적, 감각적, 지각적 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음악 미적 체험과 울림이 내담자의 참여동기 수준을 높여 치료를 촉진한다[4]. 이러한 치료적 음악 경험을 추구하며 치료사와 내담자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치료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를 도모한다. 음악치료 임상의 주요 중재 방법 또한 대면에 의한 치료적 접근이며, 가창 및 악기연주와 동작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중재 방식은 내담자들이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취약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대면에 의존하는 음악치료 현장은 치료사의 고용 문제와 내담자의 치료 서비스 중단 경험 등 음악치료 영역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국내 음악치료사 중 42%가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31.2%는 내담자의 자발적인 세션 취소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구직의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을 몸소 느꼈음을 보고하였다[2].

한편,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음악치료 분야의 협회와 학회들은 비대면 임상을 위한 학술대회 및 워크숍, 보수교육을 개최하여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모색해오고 있다[5,6]. 이와 더불어 음악치료 중재 시스템과 매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격 세팅에서의 노래 부르기 및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보고되었다[7]. 해외에서는 미주와 아시아, 유럽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들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악치료 임상경험에 관한 설문을 통해 대면/비대면 중재 방식의 다양한 이점과 한계점들

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8,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음악치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 전략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다학제적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음악치료사는 근거에 기반한 음악치료를 제공하며[10], 내담자의 필요와 목표에 따른 중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때, 중재의 방식과 전달 매체의 속성이 대면이나, 비대면이나에 따라 치료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7]. 대면 임상 현장에서는 음악적 개입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직관력과 물리적 근접성의 용이함, 비언어적 단서 제공과 음악적 하모니를 통해 중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8]. 반면, 비대면 환경에서는 그에 대한 제약이 따르며, 치료사와 내담자가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1].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임상 현장에서는 비대면 음악치료를 포함한 다각도의 시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음악치료의 임상 현장과 음악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이슈와 현실을 들여다보며 임상의 패러다임을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도 제기된다.

1.2 연구 목적

연구는 코로나19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음악치료사들의 임상 현장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음악치료사의 임상 현장 경험은 어떠하며 이를 구성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의도적 추출 방법[12]을 적용하여, 자신의 경험 및 성찰 내용을 연구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음악치료사 6인을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조건은 음악치료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과 1,040시간 이상의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임상 현장에서 음악치료 전문가로 활동하는 자들이며, 참여자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employment status	career (yr)	main client
P1	40	contract worker	14	disabled person
P2	31	part time	4	youth/ elderly
P3	50	self-employment	9	youth/ adult/ elderly
P4	48	contract worker	15	disabled person
P5	40	part time	9	youth/ adult/ elderly
P6	40	self-employment	13	youth/ adult

2.2 자료 수집

연구자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2개월간 참여자들과 전화 개별 면담과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의 편의에 맞추어 면담 방법을 선택하였고, 경험과 생각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인터뷰와 질문을 활용하였다. 면담 질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음악치료 임상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음악치료사의 대면과 비대면 임상 경험은 어떠한지,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음악치료 임상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수집된 자료의 보관 및 폐기, 보상과 피해 등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된 자료 수집은 분석과 병행하며 자료가 포화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Colaizzi[13]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의미와 주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현상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 전체를 검토하며 대략적 의미를 파악하고, 현상과 직접 관련된 진술을 추출하기 위해 개별 자료를 검토하며, 의미 형성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현상과 관련된 암묵적 의미를 파악하며 주제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반복적 의미 발견을 통해 주제, 주제 모음, 범주로 조직화하고, 이를 현상과 연관지어 연구의 근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연구 결과에 포함시켰다.

2.4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의 진실성과 엄격성을 준수하고자 Guba와 Lincoln[14]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는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실제 의미를 확인하며 사실적 가치를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경험이 충분하고, 이를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각각 의미 있는 진술의 주제화 작업을 하고 비교하기를 반복하며 결과의 의미구조를 구성하였다. 중립성 확보와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진술된 경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여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M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MJU-2019-07-002-02)을 받아 수행되었다.

3. 연구 결과

의미 있는 진술들을 토대로 19개의 주제, 7개의 주제 모음, 3가지 범주가 분석되었다(Table 2 참조). 세 가지 범주는 임상 현장의 위기 상황, 음악치료사의 임상 실행에서의 난관, 새로운 임상 패러다임으로의 도전이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experiences of music therapists' clinical practices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Crisis in clinical practices	Counteracting of facilities	Discontinuity of sessions following COVID-19
		Confusion of practice due to suspending and resuming of sessions
	Negative emotions due to loss of employment	Crisis of threatening of living
		Job insecurity and anger
Music therapists' trials of carrying out clinical practice	Hardships of conducting job duties	Retgression of therapy progress due to discontinuity of session
		Extra duties along with infection managing
		Physical depletion and mental burnout
	Necessities of psychological support	Identity crisis as a therapist
		Discovering self-resource and potentials

Challenges to new clinical paradigm	Metanoia of perception	Essentials and issues of therapy
		Needs of cooperating on and off-line sessions
	Attempting tele-sessions	Trial and error along with difficulties of IT systems
		Easy access of space-time
		Anxiety reduction of infection
		Resolving preconception of untact practice
	Tasks of clinical practice in Post-COVID-19	Establishing strategies of on and off-line session system
		Demands of various and continuing education
		Seeking application of virtual instruments and technology

3.1 임상 현장의 위기 상황

3.1.1 기관의 대응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자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일차적으로 세션 중단을 결정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한순간에 무급 상태가 되었다. 학교의 경우는 일 년의 시수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지만, 복지관의 경우는 언제 다시 상황이 나아질지 몰라 대책 제시가 어려웠으며, 세션 보류와 재개의 반복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이 치료사들의 경우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도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중략) 구청과 시청,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초반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치료사1)

기관은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 중이고요. 그래서 꾸준한 프로그램 제공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예요. 재개되어도 언제 다시 중단될지 몰라 계속 불안했어요. (치료사5)

3.1.2 근로 상실로 인한 감정변화

참여자들은 위기감과 불안을 시작으로 고용 축소에 따른 억울함과 분노를 경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지지 않자 생계를 위해 일용직과 같은 부업을 찾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은 치료사로서 임상을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모든 세션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때 택배 상하차 일과 배달 일을 겸해서 임상, 학업을 이어나갔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중략)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기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그때 저에게 음악치료 임상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치료사2)

3.2 음악치료사의 임상 실행에서의 난관

3.2.1 직무수행의 곤란

참여자들은 대면 세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에 없던 직무의 과부하와 소진을 겪었다. 재개된 세션에서는 기능이 퇴행된 내담자들을 마주하며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꼈으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는 치료사뿐 아니라 내담자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자각했다.

독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장애아동은 의존적인 모습을 다시 보이는가 하면, 자해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 치료사나 동료들 때리는 행동도 다시 보였어요. (치료사1)

어르신들은 무표정이 증가하고 긍정적 표현이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졌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치료사2)

치료사들은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위기를 겪었다면, 내담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더라구요. (중략)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장애 아동 부모는 아이 돌보느라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치료사6)

참여자들은 임상이 재개되었을 때,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방역업무가 부가되었다. 슈퍼전파자가 될까 눈치를 봐야 했고, 마스크 속 내담자의 말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신경 써야 했다. 특히 코로나 선별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별검사소를 매주 방문하는 것도 추가된 직무 중 하나였으며, 체력 소모뿐 아니라 정신적 소진까지도 경험하였다.

마스크 때문에 내담자 표정의 변화를 읽어낼 수 없어 통찰력 있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치료사2)

치료사와 내담자의 공감과 몰입 경험, 재활환자들의 상지 대근육 가동범위와 소근육 기민성 향상을 위한 악기 연주 유도 시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지지, 모델링, 치료적 가장 시에 생기게 되는 비밀, 내담자들과의 충분하고 안전한 거리 유지 등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료사3)

3.2.2 심리적 지원체계의 필요

참여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치료사 정체성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내가 음악치료사인가?'라는 물음으로 돌아왔다.

음악치료를 정의할 때 치료적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중략) 코로나가 발생하고 처음에 녹화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세션을 할 때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지 못한 채 치료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것이 치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치료보다는 강의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참여자들의 반응을 볼 수 없으니 치료적인 개입을 하기에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치료사5)

위기를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건강을 돌보는 자로서 스스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내적 힘이 필요함을 느꼈다. 동시에 잠재되어있는 긍정적인 자기 자원을 깨닫고 바람직한 미래를 소망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담자를 만날 수 있다는 감사함인 것 같아요. 현재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감사하게 일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빨리 이전처럼 내담자와 함께 서로 응원하는 표정도 보여주며 라포형성도 하고 싶고, 방역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 내담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만 고민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사2)

3.3 새로운 임상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3.3.1 인식의 전환

코로나19의 사태는 치료의 본질과 쟁점에 관한 참여자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병행에 대해 성찰하게 했다.

치료사의 존재가치와 생존을 위해서라도, 또한 급성기를 넘긴 뇌병변 재활환자의 시의적절한 재활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세션은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치료사3)

생각보다 원격 세션 안에서 보상도 원활히 되었고, 상호작용에도 많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심지어 어르신 대상 세션에서도요. 오히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소통이 어려운 대면 세션보다 감정의 교류가 훨씬 원활하다고 느꼈어요. 눈맞춤이나 표정 관찰도 더 잘 됐고요. (중략) 치료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비

대면 방식도 최적의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치료사2)

3.3.2 원격 세션의 시도

참여자들은 원격 세션을 처음 시도하였을 때, 시행착오와 시스템 활용에 따른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였다. 음악 매체를 활용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에 음향학적인 변수가 많은 음악의 송출 및 수신에 관한 어려움과 불안이 가장 높았다.

감각의 촉진, 실제 소리 모델링의 한계, 라포 형성의 한계가 있겠지요. 줌(zoom) 세션에서 즉흥연주를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치료사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확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줄어들었던 소리가 갑자기 확 커지기도 했구요. 소음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중략) 그래도 최근에는 줌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참여자4)

한편, 원격 세션의 이점으로 시공간의 자유로움, 감염에 대한 불안 완화, 개입 중단 방지, 내담자의 심리적 변화 및 특성 파악 및 특화된 적용 가능, 이로 인한 내담자의 저항 완화 등의 내용을 인식하였다.

중증 장애인들은 교통체증이나 이동 수단 문제로 시간에 맞춰 세션에 오지 못하고 늦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비대면으로 세션을 하면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이나, 폭염이나 한파에도 걱정 없이 아동과 보호자는 편하게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치료사1)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에서 원격 세션은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고, 반복재생도 가능하겠지요. 인지 재활을 위한 세션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4)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비대면 세션이 내담자의 저항을 줄여 심도 있는 이야기도 끌어낼 수 있어요. (치료사5)

참여자들의 임상에 대한 선입견은 원격 세션을 시도하며 이점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비대면 임상을 수용함과 동시에 편견도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었다.

음악치료사들은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면서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도록,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비대면 세션에서는 함께 활동하는 것은 맞지만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느낌이 있지요. (치료사1)

온라인 합창이나 합주도 시도되고 있고, 주변 동료들은 줌으로 집단 음악치료를 한다더라구요. 저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원격 세션이 쉽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일찍 다가온 만큼 음악치료사들이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치료사4)

3.3.3 포스트코로나 임상 현장의 과제

연구 참여자들은 원격 세션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요구를 피력하고,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가상악기와 테크놀로지 활용방안 모색도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치료사의 능력이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평가될거라 생각해요. 대면 치료에서는 악기 사용에 대한 치료사의 음악적 자질이 중요한데 비대면 세션에서는 그 연주를 온라인으로 송출시키고 서로가 교감할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견비해야 해요. 수준 높은 음악치료 기술은 기본이고, 컴퓨터 비대면 플랫폼 활용 능력, SNS 홍보 능력 등 내가 하는 치료 세션, 강의를 비대면으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것이지요. (치료사6)

4. 논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거듭됨에 따라 음악치료 임상 의 유례 없는 변화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접종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근황에 따르면 중단된 음악치료 세션이 재개된 기관도 있지만, 파트타임 음악치료사의 출입 제한이나 치료 세션을 유보하는 기관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들의 임상 경험에서 도출된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는데,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상실의 경험이었으며,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도전으로 수용해야 하는 원격 세팅의 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의 과정에서 음악치료사들은 원격 중재에 대한 비합리적 선입견이 전환되기도 했고, 음악 중재 기술이나 심리상담 역량 외에 온라인 기기 활용 기술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는 Agres et al[8]의 주

장과 맥을 같이하는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사태가 대면으로 음악적 상호작용을 해 온 음악치료의 중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이슈가 제기된다. 정규직 치료사의 경우 치료가 중단되더라도 고용이 유지되지만, 파트타임 치료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프리랜서를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피해 구제 지원 대책을 제시했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으며, 좀 더 효율적인 지원책이 요망된다. Kim[2]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음악치료사라는 전문직 특성에 적합한 지원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며, 사회복지, 교육 및 의료 체계에서의 고용정책에 대한 검토 또한 새로운 국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Yang et al[15]이 논의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며, 재난 상황에서 음악으로 심리지원이 가능한 제공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음악치료사인 점을 감안하여 정규직 음악치료사의 고용 확충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치료사는 급변하는 임상 환경과 위기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돌봄과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내담자의 회복을 돕는 치료전문가로서 우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코로나19가 고용 현장에 미친 파장으로 인해 음악치료사들은 고용 상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 중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변화들은 심리적 위기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치료사들은 이를 경계하여 자기를 돌봄으로써 내담자를 담아주기 위한 건강한 자기 자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Park[16]이 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과 같이, 자신을 돌보고 내담자를 돌보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음악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치료사와 내담자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는 음악치료사로서 직업정체성에 관한 전환된 인식을 유도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음악치료 영역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의료, 예술 등의 분야에서 '언택트', '원격'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 영역에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oon et al[17]은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음악치료의 가능성을 고

찰하였으며, Yoo et al[7]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위한 가창 활동의 접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는 음악치료 임상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영위하는 음악치료사들의 임상 현장 경험을 돌아보고 이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작금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은 비단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 것이기에 향후 유사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경험적 차원에서의 간접적 시행착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방책으로서 시사점을 준다.

이 연구는 소수의 경험을 담아, 임상 현장 전반의 경험을 포괄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향후 설계될 수 있는 원격방식의 음악치료 증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치료 임상이 주력 대상군별 내담자 특성이 상이하고, 추구하는 치료 목표와 변인이 다양하므로, 후속적으로는 각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사례 접근과 다각적인 요인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2020 Community health survey, COVID-19 special repor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Korea, p.418, 2021.
<https://chs.kdca.go.kr/chs/notice/noticeInfoView.do>
- [2] Y. Kim, "a,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22, pp.1-28, 2020.
DOI: <https://doi.org/10.21330/kjmt.2020.22.2.1>
- [3]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18). A descriptive, statistical profile of the 2018 AMTA membership and music therapy community.
www.musictherapy.org/assets/1/7/18WorkforceAnalysis.pdf (accessed Aug. 25, 2021)
- [4] H. J. Chong, *Influence of music on human behavior*. Seoul: Hakjisa Publishers. 2011.
- [5]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http://nakmt.or.kr/> (accessed Aug. 25, 2021)
- [6] Korean Association of music therapy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www.kamtp.or.kr (accessed Aug. 25, 2021)
- [7] G. E. Yoo, J. Y. Lm, E. J. Ha, "Feasibility of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interactive singing program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uring COVID-19",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18, No.1, pp.29-62, 2021.
DOI: <https://doi.org/10.21187/jmh.2021.18.1.029>
- [8] K. R. Agres, K. Foubert, & S. Sridhar, "Music therapy during COVID-19: Changes to the practice, use of technology, and what to carry forward in the future", *Frontiers in Psychology*, 12, 1317, 2021.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1.647790>
- [9] L. P. Cole, T. L. Henechowicz, K. Kang, M. Pranjic, N. M. Richard, G. L. Tian & C. Hurt-Thaut, "Neurologic Music Therapy via Telehealth: A Survey of Clinician Experiences, Trends, and Recommend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neuroscience*, Vol.15, pp.347, 2021.
DOI: <https://doi.org/10.3389/fnins.2021.648489>
- [10] B. L. Wheeler, *Music Therapy as a Profession*. in B. L. Wheeler (Ed.), *Music Therapy Handbook*,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p.5-16, 2015.
- [11] D. Knott, & S. Block, "Virtual music therapy: Developing new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Music Therapy Perspectives*, 38(2), 151-156, 2020.
DOI: <https://doi.org/10.1093/mtp/miaa017>
- [12]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p.624. Seoul, Hakjisa Publishers. 2017, pp.188-193.
- [13]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M. King,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392,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48-71, 1978.
- [14] E. G. Guba, &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1.
- [15] E. Yang, J. Park, & S. Moon, "Music Therapy as a Psychological Prevention Resource Recognized by Social Workers in the COVID-19 Cri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9, pp.638-345, Sep.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9.638>
- [16] J. Park,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ed Experience of the Music Therapists through Musicing*. Ph.D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101, 2021.
- [17] S. Moon, J. Park, & S. A. Yang, A Qualitative Inquiry on Experiences of the Untact Online Music Therapy Intervention for the Elderly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17, No.3, pp.291-313, Sep. 2021.
DOI: <https://doi.org/10.32451/KJOAPS.2021.17.3.291>

문 소 영(Soyoung Moon)

[정회원]



- 2000년 12월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음악치료학 석사 (M.Mus.)
- 2008년 8월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음악치료학 박사(Ph. D.)

- 2015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주임교수
- 2018년 10월 ~ 현재 : 한국음악치료심리재활학회 학회장

<관심분야>

음악치료, 심리재활, 노인복지, 신경학적 음악치료

박 지 원(Jiwon Park)

[정회원]



- 2008년 2월 :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 석사
- 2021년 2월 :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명지대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국음악치료심리재활학회 학술위원장

<관심분야>

음악치료, 노인음악치료, 음악치료 슈퍼비전, 질적연구